

'익산형 스마트 도시' 실현 박차

만경강 수변도시로 경제 영토 확장... 지리·교통·산업 연결 중심축 본격 육성

“아파트 몇 채 더 짓는 사업이 아니라, 익산시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25일 익산 시청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밝힌 만경강 수변 도시 조성 사업의 본질이다.

이날 정 시장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새만금 시대의 핵심 배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단순한 주거단지 개발을 넘어, 익산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전략적 공간 재구성의 일환인 셈이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모집 공고를 통해 만경강 수변도시 민간참여 사업참여의향을 접수한 결과 △우미건설 △엘에스아이 △엔에스 △나무피엔씨 총 4개 법인이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최종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처럼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현을 시장이 직접 시민 앞에 나서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의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놨다.

우선 정 시장은 새만금권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익산시는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행정적으로 배제돼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시는 만경강 수변권을 새만금과 연계한 교두보로 설정, 자립적인 경제권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지리적으로 새만금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은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며 “수변도시를 익산이 새만금과 연결되고 지역 경제권을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



했다.

실제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 인구 70만 명 중 약 62%가 인근 도시에서 유입될 예정이며, 입지·교통·산업 기반에서 익산은 최적의 배후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전북권 대상 입주 수요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입주 의향을 밝히며 외부 수요 기반의 가능성도 입증됐다.

시는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3대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 새만금~익산 간 직결도로 건설을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반영했고, 만경강 뱃길 복원 사업을 통해 새만금신항~익산 춘포 간 수로 관광 및 물류 연계를 추진 중이며, 전북권 광역철도망을 통해 익산~전주~군산~새만금 간 전철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신항~K-푸드벨트로 이어지는 산업·물류 축도 마련해 익산의 산업기반을 광역화한다는 전략이다.

정 시장은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임기 말 졸속 추진'이나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정 시장은 “이 사업은 5년간 준비한 전략사업으로, 최근 공도는 계획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2027년 기존 주택공급 종료 이후, 수변도시를 2032년 이후 공급 예정으로 시기적으로 충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과 재정 부담에 대해, 시가 51% 지분을 보유한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하며, 직접 재정 투입 없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파산 등 만일의 사태에도 우선 변제권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기점으로 익산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영역 확장을 동시에 이뤄내는 미래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 반영 광역화한다는 전략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박두'

중앙체육공원 ~ 신흥공원 연결... 274m 보행 전용 교량 조성

경관 · 접근성 · 안전성 갖춰... 경관 조명으로 야경 명소 기대

익산시 중앙체육공원과 신흥저수지를 바로 연결하는 '신흥공원 보행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공사 막바지 단계인 '신흥공원 보행교'가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앞두고 오는 10월 14일 전면 개방된다.

보행교가 개통되면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대를 하나의 산책·여가 공간으로 연결해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은 사이에 둔 큰 도로(선화로)로 인해 단절돼 있었다. 이 때문에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오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 우려 등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도심 속 산책로 연계를 위해 작년부터 '신흥공원 보행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보행교는 총 길이 274m, 폭 2.5~5m 규모다.

신흥공원 보행교는 도로로부터 5m 위로 떨어져 있다. 안전성과 쾌적함을 더하기 위해 법정 최소 기준인 4.5m를 0.5m 넘긴 높이로 설치됐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으며, 1㎡당 성인 5명(약 500kg)이 동시에 올라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해 시민 누구나 안심



하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동 약자를 배려해 완만한 경사로를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신흥공원은 익산시 대표 수변공간으로 사계절 꽃밭과 시민참여 정원 기 등으로 사랑받아 왔다. 이번 보행교 개통으로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산책로와 여가 공간의 활용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보행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신흥공원 일대를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14일 익산문화원 앞 광장에서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주민주도 도시재생 문화축제

'제8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성황리 개최

지난 26~27일 군산 우체통거리에서 열린 '제8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많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주민주도 도시재생 문화축제로서 약 2천 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이 날로 그 감성의 매력을 체험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1년 후에 수령하는)느린 엽서 쓰기, 나만의 우표 만들기, 가족 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퓨전 타악 연주 등 이색적인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찾은 이들의 큰 관심과 즐거움을 이끌어냈다.

또한, 사전 행사로 진행된 '손편지 쓰기 대회'와 '내가 그린 우체통대회' 수상작이 축제장 내 마련된 전시 공간에 진열되어 방문객과 수상자가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소통하는 의미있는 장이 꾸며졌다.

특히, 이번 축제를 주최한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회장 배하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불편



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교통, 화재, 응급 등 안전관리 대책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상가(10개소)는 자체적으로 '할인행사', '작품 전시' 등에 동참하며 주민주도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여기에 더해 군산우체국, 롯데몰 군산점, 한길문고, 성광교회 등은 축제 홍보, 장소제공 등 다양한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배하서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 회장은 “우체통거리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의 결실”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군산시 타운홀미팅

500여명 시민 참여

현안 · 민생 해법 논의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지난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63회 군산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500명의 시민이 참석해 열린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발전,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군산시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다른 시민은 “당일치기 관광객보다 숙박 관광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2018년 고용 위기 이후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공항 안전 확보 및 생태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안과 생활과 직결된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 26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이 열린 가운데, 김임준 시장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질문을 경청하며, 시정 방향과 정책 추진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다.

특히 은파호수공원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임의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가로망 계획 수립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군산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지속적인 소통 행정을 통해 공감과 신뢰의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시민의 힘으로 미래 열다' ...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군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든 변화, 군산 시민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산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그리고 부대행사로 OMC(Oh My Gunsan) 정책홍보부스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첫부 기념행사는 팔레타 가수팀 펜타보체가 시민들과 함께 '군산시민의 노래'를 부르며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하며 시작됐다. 이어 군산시민의 장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2부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은



지난 26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시장과 시민의 열띤 즉석 문답이 이어졌다. 지역 경제살리기,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역현안 총 3분야를 놓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했으며, 김임준 시장은 매 질문마다 허심탄회

하게 답변했다.

김임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발전해 그 뜻을 시장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을 '익산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문화체육 · 사회봉사 · 효행 · 친환경 등 부문별 6명 선정

익산시는 지난 26일 제30회 익산시민대상 수상자 6인을 최종 선정했다.

문화체육대상자로 선정된 정기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익산 작은도서관 운동의 선구자다. 지난 30여년간 지역의 작은도서관 확산과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왔다.

사회봉사대상자로 선정된 김선남 삼성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주도해 왔다. 매월 정기적인 기부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공동체 회복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효행대상을 수상받게 된 손명옥 익산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는 26년간 시어머님을 정성껏 봉양해왔다. 동시에 노인평생대학 급식봉사 등 가족 내 효행뿐 아니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모범이 된 인물이다.

친환경대상자로 선정된 김공현 강살리기 익산네트워크 대표는 익산 주요 저수지와 만경강 등 수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해 힘써왔다. 비점오염원 줄이기 교육과 생태체험 행사를 정기적

제30회 익산시민대상 영광의 얼굴



으로 진행해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천정비, 외래식물 제거 활동 등도 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대상자인 김태준 농업회사법인 (유)케어팜 대표는 감초 재배 국산화에 앞장선 농업 혁신가다.

이어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이대혁 삼기초등학교 부장교사는 지역학생들에게 익산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치며 지역 정체성 교육의 모범 사례를 만들 어낸 교사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차기 시금고

농협은행 · 전북은행 선정

익산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로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선정된 두 은행은 앞으로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각종 기금 등 익산시 자금을 보관·관리한다.

1금고 농협은행은 2025년 본예산 기준 1조 6,545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고흥사랑기금을, 2금고 전북은행은 1,918억 원 규모의 7개 특별회계와 8개 기금을 맡게 된다.

시는 시금고 지정 공고를 거쳐 금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 후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 진행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온라인을 통한 시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화면을 캡처 △채팅창에 자동출력되는 '이벤트 인증제출'을 클릭 △네이버 폼 서식을 완성시켜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6일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게시되며, 1만원권 상당의 기프트콘을 100명에게 개별 증정할 예정이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의회 소식을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추석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키로

군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5~8일까지 4일간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수도·하수·청소·보건·환경·식품 등 8개 분야 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도 특별 편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을 통해 긴급 도로보수,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긴급 상·하수도 보수, 쓰레기 처리 등을 실시해 연휴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며,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광객, 귀성객,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